

## 고등학교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 분석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김 신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 《요약》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의 영역 중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감성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2년부터 현장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특별활동·재량활동 역시 그 근본 취지에 입각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의미 있고 활기찬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4개 고등학교 '교육계획서'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자료, 현장교원과의 면담 등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의 원래의 의도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현장에서의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운영하는 현장의 교원은 시행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양성 과정에 특별활동·재량활동을 교직과목으로 신설하고 교육대학원에 특별·재량활동의 전문교사 자격증 취득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특별활동·재량활동과 연계 방안 도입을 제시한다.

주제어 :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원의 전문성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시행중인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고 있다. 실천 방안으로 특별활동 운영을 자율화하고,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를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특별활동'은 자치활동·적용활동·개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3년 동안 총 12단위를 이수하게 된다. '재량활동'은 1학년에서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시행 목적은 학생 개개인에게 건전한 인성과 적성 발달을 도모하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능력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감성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본다.

교과·특별·재량활동의 3원구조인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적인 구조와 학습자 중심의 학습구조를 추구하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체험 활동을 통해 교육내용을 심화·보충하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sup>.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을 보면, 우선 '특별활동'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결과 수백편의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양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를 통해 학교급별이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교과활동과의 관계, 교육과정에서의 위치, 교원과 학생의 요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방향 탐색 등이 논의되었다. 반면에 재량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시행된다는 점에서 특별활동에 비해 소수의 연구물이 발표되었으며, 학교 차원의 보고서가 주류를 이루고 시행에 관련된 계획서나 몇 가지 실천 사례 등이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차원에서 교육과정 분석이나 역사적 변천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함수곤 외, 2000; 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러나 홍후조(2002)는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편중된 강의 형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침에 의존하는 주제, 일회적인 수준이나 행사 차원으로 채워진 운영실태, 교육청에서 보급한 자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동기부여에 대한 배려보다는 할당된 시간을 채우는 데 급급함, 마지막으로 수업 영역의 확대에 의한 수업준비에 대한 교원 부담의 가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에 대한 발전적인 전략들은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실천 과정에서의 질 관리 개념의 부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적 지원체제와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1) 본 연구에서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그 시행 목적과 운영실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정규 학교 교육과정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교과활동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발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자 한다.

(박순경, 2002). 대표적인 예로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주제 영역의 심화 및 확대, 교사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학습자의 동기 부여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주도권이 점차 학교로 이양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시점에서, 조덕주(2002)는 ‘교원의 전문성 및 자율성 신장’이야말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시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소질·적성계발과 인성교육, 창의성 신장과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 분석 및 특별활동·재량활동에 대한 교원연수 실태를 분석한다.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에 따라 교원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학교에서 발간된 학교별 ‘교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재량활동의 두 영역인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중에서 ‘교과 재량활동’은 교과활동 영역에 편입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16개 시·도에서 개발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활동·재량활동의 연수 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원전문성 확보 방안 중, 특별활동·재량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절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문서분석(document analysis)’으로 다양한 현장계획서와 문서자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서자료로 활용된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프로그램인 ‘학교 교육계획서’와 ‘교원연수계획서’는 학교현장이나 연수원에서 개발된 것이다. 관련 자료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우선 고등학교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사례와 운영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의 24개 고등학교에서 발간된 학교 ‘교육계획서’를 분석하였다. ‘학교교육계획’이 조사된 학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에 각각 12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내에는 남학교, 여학교, 그리고 남녀공학이 각각 4개교씩 배정하였다.

다음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계획 발표된 교원연수과정 중에서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에 관련된 교원연수 자료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된 시·도를 보면, 교육연수원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

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총 13편의 자료와 경기도 을곡연수원,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등 3편의 자료가 추가로 조사되었다.

둘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s)’을 통해 현장의 교육실천가들이 자신의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다. 피면담자로는 학교 행정가 2명과 4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특별활동·재량활동을 직접 담당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교무부장과 특별활동부장, 교직생활이 20년 이상인 경력교사, 5년 이하의 교사경력을 지닌 신참교사, 각 1명씩을 선정하여 총 4명의 교사가 면담에 임했다<sup>2)</sup>. 개인별로는 학교 행정기인 교장과 교감까지 포함해 총 6명이 1회당 50분 소요함으로써 총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가이드’ 내용을 보면, ‘특별활동·재량활동’ 부분에서는 운영 방향, 프로그램에 있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전략,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운영 경험 사례를 통한 새로운 시도 방안, 시행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갈등 상황과 그 해결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특별활동·재량활동에 관련된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연수 경험 사례, 연수과정에 대한 입장,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연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탐색하였다.

## II. 고등학교에서의 특별활동·재량활동

### 1.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특징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은 시대적 변천, 경제, 사회, 문화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의 이념과 기본 방향은 변화되어 왔다.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은 GNP 100\$미만으로 일제시대의 해방과 6. 25전쟁 등 혼란의 시기로 일본의 교육체제를 계승하면서 미국의 ‘새교육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시기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에 규정되었으며, 초·중학교의 편제에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이 구분되었다.

‘제2차·제3차 교육과정’은 GNP 400~1700\$시기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상’이라는 인간상을 제시함은 물론 5. 16 군사 정변과 10월 유신의 영향으로 안보 교육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급회·아동회·클럽활동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이다.

‘제4차 교육과정’은 GNP 5,200\$ 시기로 과열된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민주

2) 본 연구에서 선정된 6명의 피면담자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A교장(남, 61세, 36년 경력), B교감(남, 49세, 24년 경력), C부장교사(남, 48세, 22년 경력), D부장교사(여, 47세, 24년 경력), E교사(여, 49세, 24년 경력), F교사(남, 28세, 3년 경력)이다.



· 복지·정의 사회 건설의 자주적·창의적인 국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학습량과 수준을 축소·조정하였다. 특별활동은 학도호국단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의 3개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은 GNP 9,000\$ 시기로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생회활동, 학교행사의 4개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GNP 11,000\$ 시기로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분권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필수 과목을 줄임으로써 학습부담을 축소하였다. 초등학교에는 ‘학교 재량시간’을 신설하고 학교의 자율 재량으로 지역과 학교, 학생의 필요나 요구에 알맞은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특별활동 시간 운영의 현실화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는 12단위를 이수하고, 학급활동, 학교활동(학생회활동과 행사활동의 2개 소영역으로 구분), 클럽활동, 단체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교육부, 2000a).

특히 국가가 GNP 20,00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이때에, 제7차 교육과정도 교육이념을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정한 것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이수과목의 축소 및 학습 내용 최적화, 고등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 나타난 재량활동은 제6차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신설, 확대되었다. 그러나 각 교육과정 개발 단계마다 ‘재량’의 의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명시된 특별활동은 교과활동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학교 ‘재량’의 의미를 일정부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가. 고등학교 특별활동의 성격

국가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제1차부터 제7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특별활동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시대에 따라 교육과정기별로 목표, 구성영역, 활동내용과 시간 배당 기준 등에 약간의 차이와 변화가 있었지만, 학생의 특기, 적성 및 소질을 개발하고, 집단 활동을 통해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을 기르자는 목적 하에 일관되게 교과활동과는 별도로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중요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특별활동에 대한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2a-e). 1950~197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직업준비 및 이용후생, 생산 및 클럽활동 등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특별활동 교육과정도 단순화하였다. 특히 군사정부시대에 안보의식의 강화를 위해 학생회 활동을 학도호국단 활동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 혹은 안보 차원에서 사회가 안정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과 특별활동

영역이 체계화되고 다양화된 것은 물론 인성교육과 창의력 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자치활동·적용활동·개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5개 영역과 구체적인 하위영역이 체계화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sup>3)</sup>. 다만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입사’라는 현실적 과제에 의한 제한으로 특별활동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거나 내용 혹은 형식면에서 축소되고 있다.

### 나. 고등학교 재량활동의 성격

재량활동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 한하여 ‘학교재량시간’을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 그 범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되었다. 재량활동은 기존의 교과활동이나 특별활동과는 달리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과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교육부, 2000b). 재량활동은 국가·지역 수준의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되고 있다.

재량활동은 학교와 교원, 학습자가 주도하는 ‘또 하나의’ 교육활동이자, 그에 용해되어 있어야 할 측면에 대한 추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존립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박순경, 1999). 재량활동 특히 창의적 재량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깊이 있게 수업활동을 진행하는 특별활동과는 다르게 주제선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반 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원과 학생에게 자율권과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창의적 재량활동에서의 핵심 관건은 어떠한 내용인가가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나아가서는 안내자로서 교원과 학습의 주체로서 학생의 역할과 책임을 얼마만큼 보장받느냐의 문제이다.

재량활동은 ‘주어진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함수근, 2002).

첫째, 재량활동은 교과 및 특별활동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재량활동은 지역사회와 교육의 독특한 필요, 학생의 요구에 따른 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자율적 교육 활동이다. 셋째, 재량활동에서는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차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이 강조된다. 다만 교과 및 특별활동과 경계선상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3)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의 5대 영역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0a). 첫째, ‘자치활동’에는 협의 활동, 역할분담활동, 그리고 민주시민활동이 포함된다. 둘째, ‘적용활동’으로는 기본 생활습관 형성활동, 친교활동, 상담활동, 진로활동, 정체성 확립활동이 있다. 셋째, ‘개발활동’에는 학술문제활동, 보건 체육활동, 실습조작활동, 여가문화활동, 정보통신활동, 청소년단체활동이 있다. 넷째, ‘봉사활동’에는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이 있다. 마지막으로 ‘행사활동’에는 의식행사활동, 학예행사활동, 보건체육행사활동, 수련활동, 안전구호활동, 교류활동이 있다.

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2. 교원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영역의 전문성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사회에서 특별활동은 5개 영역으로 설정되며, 교육적 의미는 학습자의 인간성, 창의성, 적응력, 자기주도력, 적성, 능력, 소질 특기개발 등을 높일 수 있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재량활동은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사회 의 실정,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인간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갖춘 교원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원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지식정보화사회로 연계망적 지식(networking knowledge, crosslinked knowledge),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problem-solving knowledge),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초점이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며 집단 역동성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협동학습능력(co-operative learning)이 요구된다(이동원, 1997). 셋째, 학습자 중심의 인간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상하 관계에서 좌우관계로,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설득관계에서 동정관계로의 전환을 통해 체험 중심의 공동 체험학습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이원구, 1993).

한편 미래지향적인 교원은 재직 중에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일반 교원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차이를 창출해낸다. 자격증 정책에 대한 업그레이드 즉, 질적·양적 수준 향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Hirsch, Koppich & Knapp, 2000).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특별활동·재량활동에 대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와 민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최신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 전략 등에 대한 교원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Ⅲ.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 분석

### 1. 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 가. 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2002)에서 연구학교 등의 특별활동 운영 자료를 참고하여 주제 또는 활동 사례를 제시한 것을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영역별 영역수는 4~7개 영역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에, 주제별 주제수는 개발활동이 35.8%(54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행사활동으로 29.1%(44종), 적용활동 15.2% (23종), 봉사활동11.3%(17종)순으로 자치활동이 8.6%(13종)로 가장 낮게 편성되어 있다. 항목별 항목수를 비교해 보면 개발활동이 64.5%(509종)로 월등히 많으며, 그 다음이 행사활동 14.6%(115종), 적용활동 10.9%(86종), 봉사활동 6.7%(53종)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치활동은 3.3%(26종)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활동’은 4개 영역(협의활동, 역할분담활동, 민주시민활동, 그 밖의 활동)과 13개 주제와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활동’은 6개 영역(기본생활습관 형성활동, 진교활동, 상담활동, 진로활동, 정체성 확립활동, 그 밖의 활동)과 23개 주제 86개 항목수로 되어 있다. ‘개발활동’은 7개 영역(학술, 문예활동, 보건체육활동, 실습노작활동, 여가문화활동, 정보통신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그밖의 활동)과 54개 주제 509개 항목으로 가장 폭넓은 주제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활동’은 6개 영역(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 지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그 밖의 활동)과 17개 주제 5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행사활동’은 7개 영역(의식행사활동, 학예행사활동, 보건체육활동, 수련활동, 안전구조활동, 교류활동, 그 밖의 활동)과 44개 주제와 11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특히 그 밖의 활동으로 학부모회, 학부모교육, 알뜰매장, 정년퇴임식, 개교기념일, 성년식, 가족체험학습의 주제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표 1〉 고등학교 특별활동의 영역 편성 현황

구분	영역별		주제별		항목별		합계	
	영역수	%	주제수	%	항목수	%	합계	%
자치활동	4	13.4	13	8.6	26	3.3	43	4.4
적용활동	6	20.0	23	15.2	86	10.9	115	11.9
개발활동	7	23.3	54	35.8	509	64.5	570	58.8
봉사활동	6	20.0	17	11.3	53	6.7	76	7.8
행사활동	7	23.3	44	29.1	115	14.6	166	17.1
합계	30	100	151	100	789	100	970	100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5개 영역의 특별활동이 어떻게 시행되며, 시행에 관해 교원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까? 몇몇 교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평교사 시절 특별활동 부서를 정하여 놓고, 부서의 지도를 맡아 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다(A 교장).

교원 수급에 따른 편법 운영, 교원의 열의 부족, 교원의 전문성 부족, 입시를 증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 등에 문제점이 있다(B 교감).

학교행정이 입장에서는 특별활동·재량활동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담당 교원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데, 여러 갈등상황을 언급했다. 배치된 교원 자체의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성,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배치 부재, 입시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압박감 등이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한계로 특별활동·재량활동의 근본 취지나 목적을 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계발활동의 가치를 다양성보다는 연속성과 지속성에 두고 등호회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교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C 부장교사).

학급별 학교 자치활동을 지도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교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내실 있는 자치활동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토론문화는 매우 중요한데 학교현장에서 그 역량이 길러져야 하는데 행사활동이나 적응활동 등의 활동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D 부장교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특별활동·재량활동의 책임자로 활동하는 담당 부장교사들 역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교원을 지도·관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다.

상담실과 생활지도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나 현 상황에서는 그러한 각 부서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응활동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획된 계발활동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임의적으로 흔들려서는 안되고 계획된 대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지도교사와 학생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E 교사).

특별활동 운영상 학생조직을 할 때 원하는 부서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실시하면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F 교사).

이처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교원들이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5가지 개별 영역 자체가 의미 있지만, 지도교원과 학생들의 마인드나 학교의 적극적인 시행에 대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교원들은 특별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교사가 지도하는 것은 담당교과에 대한 지도에 치우쳐 있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지도를 맡게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학부모, 지역인사 중 능력 있는

재원을 발굴 활용하되, 단 교사가 역량이 있는 분야는 지도 의뢰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A 교사).

민주 시민,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품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형식적인 평가에서 탈피하여 5개 영역 또는 3-4개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분류하여 기록해 주면 더 효과적이겠다(E 교감).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의 계발활동은 인문계에서는 일시 위주로 다소 위축된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아다니며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외 활동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내용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부모나 전문 강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전문성과 취미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계발활동반을 운영하면 좋겠다(C 부장교사).

특별활동은 좀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E 교사).

위에서 제시된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교원의 전문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실천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쉽다.

## 나. 특별활동의 영역별 분석

서울시내 인문계 24개의 고등학교 '학교교육계획서'를 중심으로 특별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특별활동의 항목수를 비교해 보면 계발활동이 69.8%로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행사활동이 9.5%, 봉사활동 7.8%, 적응활동 6.5%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공립학교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주체수로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 남학교가 남녀공학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항목수는 남학교가 남녀공학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분하여 조사한 이유는 성별, 지역별, 부모의 교육열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참고로 살펴보았다. 또한 특별활동의 주요사례를 분석 방송반이 24개교 모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전산부(21개교), 도서반(20개교), 독서반·사진반·축구반·농구반·배드민턴반·연극반·합창반·RCY·십자수반·문예반 등 주로 예체능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특별활동 사례 현황(24개교)

구 분		공 립			사 립			합계	%
		남고	여고	공학	남고	여고	공학		
자치활동	영역별	4	2	2	2	2	3	15	11.8
	주제수	7	4	4	4	4	4	27	7.5
	항목수	18	8	9	10	7	8	60	6.3
적응활동	영역별	5	4	5	6	6	5	31	24.4
	주제수	10	5	8	8	7	7	45	12.5
	항목수	14	5	9	12	10	12	62	6.5
계발활동	영역별	6	6	6	6	6	6	36	28.3
	주제수	29	32	26	30	31	28	176	48.9
	항목수	129	103	97	118	117	97	661	69.8
봉사활동	영역별	5	5	2	4	5	4	25	19.7
	주제수	11	7	4	8	13	5	48	13.3
	항목수	16	18	4	12	14	10	74	7.8
행사활동	영역별	4	4	3	4	2	3	20	15.7
	주제수	10	9	10	16	7	12	64	17.8
	항목수	9	10	11	30	11	19	90	9.5
합계	영역별	24	21	18	22	21	21	127	8.9
	%	18.9	16.5	14.2	17.3	16.5	16.5		
	주제수	67	57	52	66	62	56	360	25.1
	%	18.6	15.8	14.4	18.3	17.2	15.6		
	항목수	186	144	130	182	159	146	947	66.0
	%	19.6	15.2	13.7	19.2	16.8	15.4		

## 2. 고등학교 재량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재량활동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책 및 방향과 각 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편성방향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재량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바른 인성 함양, 소질·적성계발 창의성 신장, 지식정보화 능력 함양 등을 위해 특별활동,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에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다.

몇 학교의 경우, 예를 들면 C여자고등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은 담당교사가 범교과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수업은 수업 시수가 적은 영어, 수학, 체육, 가정, 도덕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5인이 맡아서 운영하며, 2004학년도에는 범교과학습 중에서 성교육, 보건·위생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심성수련교육, 정보와 도서관 등의 영역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또한 D부속고등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을 연간 2단위를 배정하여 학기당 1단위씩 정일제로 운영하며 ‘한국문화 정체성교육’ 영역을 이수시키고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지도 자료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S고등학교는 가능한 모든 교과학습의 주제를 망라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하며, 시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토론과 발표, 사례연구와 인물학습 등 소집단 공동연구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였다. 또 이 학교는 개별 학생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는데, 2003년도에는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 연구차원에서 ‘인물 연구를 통한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 하에 창의적 재량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지만, 내면에는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이해하기’라는 수업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자아정체성 확립뿐 아니라 자료 분석방법, 글쓰기, 발표하기 등의 기초 학습 능력, 협력학습을 통한 타인이해 능력의 향상까지도 가능했다.

순수한 재량활동은 내신 성적이나 수능 준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통한 교재 개발과 수업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고, 개발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교육과정과 수업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춘 교사가 창의적 재량활동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C 부장교사).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요구분석을 통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한 후, 협의과정을 통해 학교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 해당 학습 주제를 담당할 교사를 미리 선정하여 교과별 교사정원을 신청하도록 한다. 재량활동은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사전에 조사하여 교사확보와 예산을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D 부장교사).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을 맡아 경험한 담당 부장교사에 의하면,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원 연수는 교과연수와 달리 학습자의 요구나 성향을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편의주의적 재량활동은 공교육이 비난받을 수 있는 타겟이다. 제7차 교육과정을 제안할 때처럼 학교 밖의 전문가 초청이 현실화되어야 한다(E 교사).

주제를 설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종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시사적이고 역사 관련 TV프로그램의 비디오 상영이 효율적이었으며, 창의적 재량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재 부족의 어려움이 컸다(F 교사)

이러한 융통성과 자율성이 확보된 교육과정 개발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홍후조(2002)에 의하면, 고시되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각종 규정 사항들은 학교

적용과 교원의 재구성의 범위를 안내하기 위하여 의무규정과 재량규정으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과정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감에 근거한 규정들을 정해야 할 것이다.

## Ⅳ. 교원의 특별활동·재량활동 연수 실태 분석

### 1. 교원연수 운영 방향

교원연수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 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되고 있다.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을 연수원장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 및 1급 정교사 과정, 전문상담교사과정, 사서교사과정, 1급 양호교사과정, 원감 및 원장과정, 교감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자격연수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직교과 및 특기·적성활동에 관한 교과로 10~20%의 이수시간 배당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연수는 직무연수인 경우에는 연수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자격연수는 특기·적성활동과정에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연수방법에는 제7차 교육과정 총론, 학교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편성, 운영하고 교과 교육과정과도 연계되도록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도 교원연수 계획안에서 교육 목표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원연수의 운영방향을 첫째, 현장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능력제고, 둘째, 자발적인 연수, 연구활동 지원강화, 셋째, 수요자 중심 연수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넷째,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질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전문성 발달을 제공받기 위해서, 교원의 신뢰와 수용적인 자세, 학교의 분위기, 적절한 지역 학교의 지원 등을 포함한 학교장에 의해 고려되어질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 궁극적으로, 행정가들은 학생들의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원의 질에 연계된 효과적인 전문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Kent, 2004). 따라서 앞으로의 교원연수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그 중에서도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한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의 활성화로 창의력이 풍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교원연수 실태 분석

2004년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의 연수계획을 분석해보면,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되며, 연수종별과 대상은 자격연수 139과정 13,732명, 직무연수 490과정 40,768명, 기타연수 230과정 20,518명, 교양교육 3과정 2,160명으로 총합계 교원 85과정 75,018명, 학부모 3과정 2,160명이 연수대상이 된다. 이중에 특별활동·재량활동의 교원 연수과정은 전체 연수과정의 10.8%인 93개 과정이 개설되고 연수인원은 12.9%인 9,679명이 연수대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대상 교양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만 3개 과정 2,160명이 연수대상이 되며 특별활동·재량활동은 1개 과정 22.2%인 480명으로 매우 적은 연수대상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전국교육연수원 중 특별활동·재량활동 연수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교육연수원은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강원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으로 5개 연수원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전국 시·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특별활동·재량활동 연수계획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연수계획을 분석해 보면 교원의 총 연수과정 88개중에 특별활동·재량활동 연수는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수인원은 총 11,410명중 4,960명으로 4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연수종별로 분석해 보면 자격연수과정은 총 연수인원의 88.5%가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교과목을 연수받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자격 연수는 100%가 이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직무연수과정에는 총 연수인원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비율이 유치원 40%, 초등 29.8%, 중등 21.4% 순으로 평균 34%로 아주 저조한 실태이다. 또한 학부모연수과정은 총 연수인원 2,160명중 특기·적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480명으로 이수율도 22.2%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2004년도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연수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연수 영역이 교양, 교직, 전공, 특별활동, 교직·특활, 직무, 장학행정, 참여활동 등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영역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과목도 연수영역에 따라 특기·적성·활성화 방안, 봉사활동의 체험, 특기·적성·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창의적 재량활동의 활성화 방안, 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 특기·적성교육의 실태 등으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 과정도 자녀 소질개발과 진로지도 학부모과정으로 효율적인 특기·적성교육과 진로지도, 특기·적성교육 체험의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연수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 보면 독립된 연수과정이 아닌 1~3시간 정도의 단일 교과목으로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교양수준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교육내용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과 특별활동·재량활동을 확대 및 강화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특히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연수는 한 교과목이 아닌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한국특별활동교육연구회(2003) 주관으로 특별활동 직무연수로 경락반, 제과제빵반, 댄스스포츠반, 디자인반, 사물놀이반, 사진반, 수화반, 한국무용반, 애니메이션반 등을 주로 하계 및 동계방학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따라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직무연수를 대학과 민간단체 등에 확대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현장 교원들이 말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몇몇 교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도달이 문제인데, 이에 교사는 맡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A 교사).

모든 교사가 1-2가지 특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B 교감).

학교 행정가들에 의하면, 특별활동·재량활동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지속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호봉을 통한 외적 강화체제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실제 운영자인 부장교사들은 실제 사례나 관련 자료에 대한 교원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현장 경험에 입각한 효과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부나 학교차원의 연수비를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단계적 연수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특기·적성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E 교사).

특별활동은 교사가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신 특별활동을 미리미리 조사하여서 교사 본인이 충분히 생각해 본 후 과목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F 교사).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자신의 관심 분야나 특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며 동시에 관련 연수에 대한 참여를 원한다. 그러나 급

변하는 사회구조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연수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확산하거나 학교나 교원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지향해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정착 차원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인접한 4-5개의 학교가 포함된 ‘인력 Pool제’처럼 ‘학교구(school district)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환해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한 개의 학교구에 포함된 몇 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한 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정해진 시간에 학생이나 교원이 상호 방문하는 열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 V. 교원의 특별활동·재량활동 전문성 제고 방안

### 1. 교원양성 연수과정의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 등을 통해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교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보건교사 등으로 구분되며,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교직과정의 과목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직과정의 과목에는 특별활동·재량활동의 교과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 등 교직과정에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또는 가칭 ‘특별재량활동’의 독립된 교과목을 신설·이수함으로써 교원의 질과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2004.11.16 보도자료)는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와 교원양성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즉 교원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교직학점이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기본 능력을 교원 양성과정에서 체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원양성 교육기간이 현재의 4년에서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되고 교육실습기간을 단계적으로 초등 15주, 중등 8주 이상으로 연장되며 전문대학원 제도도 2010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의 추진 과정에서 특별활동·재량활동의 교과목 신설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의 교원양성 체제만으로는 변화된 교육과정 체제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인성교육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수 차원의 신규임용예정교사와 현직교원 직무연수과정에도 ‘특

별활동·재량활동'에 대한 이수 시간을 독립된 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 교원 전문성의 수준과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

## 2. 교육대학원의 특별·재량활동 전문교사 자격제도 도입과 전문프로그램 운영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사회가 안정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과 특별활동 영역이 체계적이고 다양화되면서 인성교육과 창의성 수업 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구학교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30개 영역, 151개 주제수, 789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은 교과, 특별활동과 함께 교육과정의 하나의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재량활동이 학교의 특성 및 여건, 지역 사회, 교사·학생의 희망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면 특별활동·재량활동의 전문교원 양성 과정을 통한 전문교원 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재량활동교사' 또는 '전문인성교육교사' 양성과정의 설치가 필요하다.

중전의 교도교사 양성과정의 자격증제도가 1998년도부터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제도로 도입되었다. 도입된 배경은 전 교직원의 상담전문성 제고를 통해 적절한 지도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지도, 인성지도, 사회성지도, 진로지도, 여가지도 등에 대하여 전문적 지도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와 동시행규칙12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과목과 이수학점)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다.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은 비학위과정(1년제)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과정과 연계된 과정이 있다. 비학위과정은 상담관련 전공(초·중등) 및 특수교육전공이 개설된 교육대학원 및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으며,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상담관련 전공이 개설된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양성과정 대상은 정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의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국립대 15개교 36과정, 교육대학교 8개로 8개 과정,



사립대 63개교 143과정으로 총계 86개교 187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비학위 과정은 82개 대학에 165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설치과정은 초등·중등·특수교육과정과 야간제와 계절제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상담 관련 양성과정 수료자에게 재량활동에 포함되는 진로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상담 관련 교육과정 내에 진로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교원교육 개선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방법의 하나로 ‘숙련된 교원’(Johnson, 1999)을 길러 교육현장에서의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교원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 교육의 위기에 대한 원인이자 동시에 치료법이기도 하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스스로 자기 연찬, 교수·학습방법 개선 워크숍, 수업연구, 수업 참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교원의 권위는 전문성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술, 능력, 인격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타인이 인정해 줄 때 성립된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같은 고등사고능력 배양,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 함양, 그리고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특별활동·재량활동의 전문 교원양성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전문 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학교의 정규 교원들이 대상이 되며, 교육기간은 1년 정도로 정하며, 특별활동의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해 ‘맞춤식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대학원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 체제에서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 평생교육사와 특별활동·재량활동 연계 방안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방법은 첫째, 평생교육법 제17조 평생교육사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둘째, 평생교육법 제18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센터와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교육훈련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중부권(천안외대 평생교육원), 호남권(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영남권(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4개 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시행령 6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시·교육청 연수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



정 받아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은 물론 특별활동, 재량활동, 지역사회교육활동, 인성교육, 청소년교육 등에 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과 같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연수 성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연수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범위가 다양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이수과목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과목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개편하여 특별활동·재량활동·인성교육 과목 신설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함께 양질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인성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평생교육 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 직무 관련 기술과 지식, 자질 등의 배양과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운동과 방과후 교육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각급 학교에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활동·재량활동을 담당하는 교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이나 연수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자기 반성적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특별활동·재량활동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책무감을 가진 교원만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Reed, 2000)할 수 있고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한국인의 육성을 통한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Edutopia)’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교과를 제외한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 및 교원연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선 방향의 하나인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접근을 시도했는데, 우선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은 시행 초기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영역·주제·활동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조사한 24개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에서도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특별활동의 경우에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개발활동의 비중이 나머지 네 영역에 비해 월등히 크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 있어서 근본 취지와 달리 변칙적으로 운영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기도 한다.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교원이야말로 학생들의 학업적 수행과 성취를 개선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Lewis, 2002). 교육현장에서는 특별활동·재량활동에 대한 담당교원의 인식 부족과 함께 관련 영역에 대한 전문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수업 자체에 내실을 기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 교원의 수업의 질과 영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교원연수'에서는 특별활동·재량활동에 대해 충분한 시간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교원연수의 방향이 교과에 치중되는 반면 특별활동·재량활동 영역은 개론 수준으로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천적 방안이 중시되어야 할 특별활동·재량활동에 대한 연수는 이론이나 개론 설명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연수에서 영역마다의 차별화 된 교수-학습 전략 및 교육내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149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여러 유형의 특별활동의 사례 중에서 개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리더십, 음악이나 합창 활동(music and chorus experiences), 조직화된 스포츠(organized sports) 등의 효과성이 입증되고도 했다(DeMoulin, 2002).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도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취미, 외국어 등으로 분류하여 교원들의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특기·소질을 보유한 모든 교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특기교원(현직교원) 인력 Pool제'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활동·재량활동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원양성·연수과정에 특별활동·재량활동의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육대학원에 특별·재량활동의 전문교사 자격제도 도입과 시·도교육청의 전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연수원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활동·재량활동의 연계 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연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에듀넷(Edunet)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개별 교과에서는 교과와 연관된 학회나 교과연구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연결망 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적 공동체 (professional community)'(Reed, 2000)를 통한 교원간의 자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협력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 공동체를 통해 교원들은 자신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원이 특별활동·재량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나 관련 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데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창의적 재량활동이 근본 취지 및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 자료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 교과 내용이 아닌 잠재적 교육 차원에서 학습자의 자율성, 인성, 도덕성 등을 함양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은 첫째, 교육과정 구성이나 활동을 선정할 때 교과영역별 접근이 아닌 간학문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재량활동 시간에는 교과별 접근을 탈피하여 통합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제나 활동에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시도이다. 교원은 안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되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생성적인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적 과제일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계획서나 연수 프로그램의 시간이 늘어나고, 물리적 환경이 나아지더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별활동·재량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므로 특별활동은 내용 차원에서, 재량활동은 학습활동 차원에서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원들은 학교 현장의 여건 미비를 지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교원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원의 개별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원의 전문 지식과 기술의 신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은 교사 자신도 인정하는 교육의 과제이다. 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교원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만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행정이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제가 공존하는 배경 하에서만 질적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교원 자신의 동기부여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교원 전문성의 발전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효과적인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는, 교원의 신뢰와 수용적인 자세, 학교의 분위기,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 등을 포함한 학교장에 의해 고려되어질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Kent, 2004). 궁극적으로, 행정가들은 학생들의 성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교원의 질에 연계된 효과적인 전문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적용과 전개는 단순히 문서로 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적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교원이 교실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실천적인 성

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이란 단지 효율적인 전달자로서 능력만이 아니라, 이러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전통적인 강의 위주의 교원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원연수 체제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 자체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지원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999). 전문상담교사자격제도 미간행
- 교육부(2000a).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 교육부(2000b).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2001). 재량활동 교육과정·운영의 실제.
- 교육인적자원부(2002a). 특별활동[자치활동]. 한국교원대학교 특별활동1종도서편찬위원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b). 특별활동[적응활동]. 한국교원대학교 특별활동1종도서편찬위원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c). 특별활동[계발활동]. 한국교원대학교 특별활동1종도서편찬위원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d). 특별활동[봉사활동]. 한국교원대학교 특별활동1종도서편찬위원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e). 특별활동[행사활동]. 한국교원대학교 특별활동1종도서편찬위원회.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4). 보도자료—제목: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된다. 교육부,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시안) 발표. 2004. 11. 16
- 박순경(1999). 학교 교육과정 이해와 연구에 있어서의 재량활동의 함의. *교육과정연구*, 17(1).
- 박순경(2002). 국가수준 교육과정 질 관리의 개념화와 교육과정 행정의 개선 방향. *교육학연구*, 40(2).
- 이동원(1997). *인간교육과 협동학습*. 서울: 성원사.
- 이원구(1993). *인간화교육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서울: 교학사.
- 조덕주(2002).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 및 개발방안에 대한 제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3).
- 조정기(1999). 교사의 전문성과 교직과정 개선안 연구. *신라대학교 논문집 제47집*.
- 한국교육과정학회편(2002).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특별활동교육연구회(2003). 특별활동 하계교사직무연수 실시 공문.
- 함수곤·조주연·양미경·김명수 (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재량활동 실천 사례 개발. 교육부 교육정책연구 2000-1-24.
- 함수곤(2002).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편성과 운영. 한국교육과정학회편. *교육과정 :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홍후조(2002).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II) :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변화 관련 기본 개념 정립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2).
- Castor, B. (2000). Quality Teaching Key to Education Reform. *Educational Horizons*, 78(3).
- DeMoulin, D. F. (2002). Examining the Impac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149 High School Seniors.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29(4).
- Hirsch, E., Koppich, J., & Knapp, M. S. (2000). Reflections on Teaching Quality. *Journal of Staff Development*, 21(4).
- Johnson, E. (1999). Reform in Teaching Education : The Response to Accountability is Collaboration. *Education* (Chula Vista, Calif.), 119(3).
- Kent, A. M. (2004). Improving Teacher Quality through Professional Development. *Education* (Chula Vista, Calif.), 124(3).
- Lewis, A. C. (2002). School Reform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hi Delta Kappan*, 83(7).
- Reed S. J. (2000).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ers, *Educational Horizons*, 78(3).

• 논문접수 : 2004년 10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4년 11월 22일 / 게재 승인 : 2004년 12월 3일

## ABSTRACT

The study of the realities of the implementation of curriculum analysis for extra activities and optional activities in high school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eachers' professionalism

Shin Kim

(Ph. D. Candidate, Hanyang University)

The study of the realities of curriculum analysis for extra activities and optional activities in high school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eachers' profession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cate the methods in which teachers can effectively manage extra activities and optional activities in the 7th curriculum of high school. In the 7th curriculum, through extra activities and optional activities, each student's individual human nature and inner mind are encouraged to develop. In addition, their unique and useful knowledge is produced creatively, along with easy going personal relationship. Furthermore, extra activities and optional activities can be used to fulfill each students different desires, making school experience more meaningful and enthusiastic.

For this purpose, 24 high schools educational plans in the implementation of optional and extra activities in the 7th curriculum were evaluated and the improvements were suggested.

Next, by evaluating the training of optional and extra activities by on-site teachers, the direction of the study for optional and extra activities were confirmed.

Lastly, based on the result from the evaluation, the following methods of teachers' professionalism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and extra activities. First,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optional and extra activities for developing students' creativity and humanism, the training should not be only for the preparation of the college curriculum. But the hours of training course of extra and optional activities for new teacher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quality of teachers' professionalism will be enhanced accordingly.

Second, in 7th curriculum, the school's characteristics, situations, local communities, teachers and students needs should be all reflected through diversified management of extra and optional activities. For this achievement, the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program for extra and optional activities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s recommended. This program refers to a training course for "extra and optional activities teachers" or "professional humanistic education teachers". This course is required to be implemented similarly to the training courses for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Third, the life time education can be approached with two dimensions, systematical or conceptual. As for the systematical approach, extra and optional activities can be incorporated into professional life time instructors' license program so that it can be a stepping-stone for training of professional instructors. Also, teachers can influence student's decisions in lives, careers by adopting the concept of life time education during extra and optional activities.

Key Words : extra activities. optional activities. teachers' professionalism